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2-0057

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가이드북

여기, 행복한 선생님들의 배움터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함께 떠나는 배움 여행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66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99



나태주, <꽃> 3

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가이드북 ‘여행터(여기, 행복한 선생님들의 배움터)’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아끼시는 모든 교직원들을 위한 안내자료입니다.

각 학교에서 교육현장 혁신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의미와 성장방안을 다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하여 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시된 질문들을 넘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질문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방향은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가이드북이 전문적학습공동체 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본 가이드북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전학공’, 그리고 논문에서 인용 시 ‘교사학습공동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Contents



질문 한 눈에 보기 4

I

전학공, 지금 시작하기

- ① 전문적학습공동체, **다시보다** 8
- ② 전문적학습공동체, **시작하다**
비전 세우기 / 주제와 목표 정하기 / 리더십 공유하기 13

II

전학공, 함께 성장하기

- ① 수업, **함께 행복**하도록 24
- ② 우리, **더불어 성장**하도록 28

III

전학공, 쉽게 운영하기

- ① 인천 전문적학습공동체, **살펴보다** 34
- ② 인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하다** 39



질문 한 눈에 보기

PA I RT

- 전문적학습공동체란 무엇인가요? 8
-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왜 필요한가요? 9
-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나요? 9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및 참여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요? 10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결과를 남기는 것도 또 하나의 업무입니다. 꼭 남겨야 할까요? 11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시간 확보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 의미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해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12

비전 세우기

- **1단계** '마음 모으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14
- **2단계** '공동체 돌아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
- **3단계** '비전 세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

주제와 목표 정하기

- **1단계** '생각 나누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6
- **2단계** '주제와 목표 정하기' 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
- **3단계** '활동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17

- 주제 선정 및 활동 계획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8
-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18
-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20
- '분산적 리더십' 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요? 20
- 공동체의 성장 과정에 따라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1
- 전학공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구성원들에게 리더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21
- 리더가 꼭 한 명이어야 할까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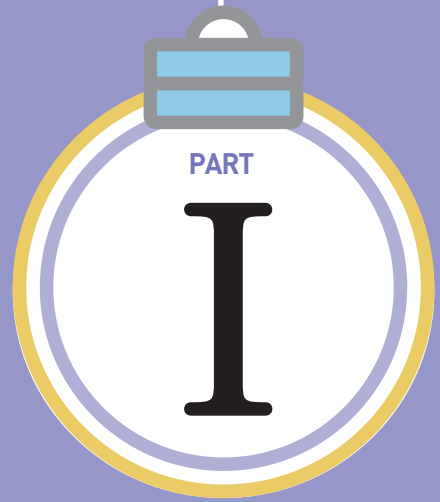
PA II RT

- 공동수업, 왜 필요할까요? 25
- 공동 수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
- 수업성찰협의회, 함께 해볼까요? 26

PA III RT

- 인천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34
-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언제 구성하고 활동하게 되나요? 35
-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인원 구성의 제한이 있나요? 36
- 인천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몇 팀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36
-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원을 어떻게 모집할 수 있을까요? 37
-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7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홍보 및 안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8
-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신청 서식은 어디에 탑재되어 있을까요? 38
- 인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한 안내 사이트나 자료가 있을까요? 38

-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제는 어떻게 되나요? 39
- 수업을 꼭 공개하고 나누어야 하나요? 41
- 강사 초청 연수 등이 없이 구성원들의 연구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41
-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자율장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42
-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다른 학교와 연계하여 할 수 있나요? 42
-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가 근무 시간 외까지 진행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인가요? 42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43
- 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3
-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 활용의 예가 궁금합니다. 44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제시된 것 이외에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44
- 전문적학습공동체 결과 보고 및 정산을 위한 서식이 있나요? 44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45
- 우리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5



전학공, 지금 시작하기

- 01 전문적학습공동체, 다시보다
- 02 전문적학습공동체, 시작하다
비전 세우기 / 주제와 목표 정하기 /
리더십 공유하기

01

전문적학습공동체, 다시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가치관을 유지하며
지금처럼 살아갈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다.”

Gerald Huither



1

전문적학습공동체란 무엇인가요?

전문적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¹⁾는 공동의 가치와 비전 아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연구, 실천 및 성찰, 공유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학습조직입니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교사들은 교육전문가로서 학교 문화와 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며 집단 지성을 통한 학교 변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지속적인 학교혁신의 든든한 기반이자 동력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1) Shirley M. Hord(1997)는 학교 안 구성원들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며 전문적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혁신교육, 배움의 공동체 등과 맞물려 한국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해오고 있습니다(곽영순, 김중윤, 2016).

2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왜 필요한가요?

교원의 개별적인 전문성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 위해 학교라는 공간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가진 역량이 민주적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모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웠던 교육현장 속에서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을 모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온전히 구축되어 작동되고 있었던 학교는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그 빛을 발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문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학습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교직원과 학생이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3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나요?

전문성, 정체성, 유대감, 자발성, 수업개선, 상호성, 공동의 가치와 비전, 공유, 성장, 실천, 협력, 성찰 등은 전문적학습공동체에 꾸준히 참여한 교사들과 이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함께 추구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결코 취미활동이나 친목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한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학습·연구·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집단적 책무성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반성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 개인을 넘어 학교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실천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자발성에 기반하여 공동체가 조직되었더라도 일정 기간의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면 전문성 신장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의미를 형성·인식하고, 그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김종훈, 2018).

4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및 참여 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요?

내면적 동기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내면적 동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조성합니다. 자율성에 기반하되 학습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결코 형식적이거나 결과물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함께 전학공의 방향을 논의하고 활동 과정 자체에 더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반성적 성찰

강사의 강의로만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연수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수업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업성장과 학교 문화의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

교사 뿐 아니라 학교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 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에 구성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의 공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을 대표자가 혼자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역할을 분산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산적 리더십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및 실천, 그리고 운영의 과정을 함께 논의하며 나아가는 시간 자체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성장의 선물입니다.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전학공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생각이 모아지지 않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생각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믿음을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과 모습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흔들림 속에서도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결과를 남기는 것도 또 하나의 업무입니다. 꼭 남겨야 할까요?

질문의 내용에 매우 공감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남기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지닌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나누는 생각들,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지는 교육 이야기들에는 공동체와 구성원의 성장이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공동체의 시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남기면 됩니다. 패들릿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로의 생각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공유하면 됩니다.

공동체의 주제나 특징에 따라 방식을 달리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기록' 그 자체는 어떤 형태이든 시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모인 시간들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다면, 각 구성원이 교육의 일상에서 느낀 단상들을 써온 후 모임에서 공유하며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모이면 곧 공동체의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시간 확보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수요일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집합 회의 및 연수, 공문 발송 및 보고를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여러 바쁜 일정들과 끊임없는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과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고픈 마음이 있어도 실제적인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업 시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전학을 위해 배정된 시간을 최대한 다른 업무나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날에는 수업이 일찍 종료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하교한 후 전학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교가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에 중심을 두고 운영될 때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하고 실천하며 성찰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불필요한 업무들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간소화하여 업무를 재구조화 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업무의 재구조화를 위한 전학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의미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해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하나의 사업이나 업무로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내적 동기가 부여되고, 전학공 활동에 따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개혁가형·활동가형 교사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성공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만 합니다(김하정, 원효현, 2020).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내실 있게 활동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개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맞물려 학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커다란 힘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지닌 본질과 가치를 존중하며, 업무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구성원이 성장하게 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2

전문적학습공동체, 시작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시작 단계에서 비전, 목표, 주제를 함께 고민하며 논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시간 자체가 공동 연구·공동 실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비전 세우기

“경쟁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협력할 기회가 생긴다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서로 협력할 때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이 협력할 것이다.”



Cecile Andrews

비전을 정하는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각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대로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비전을 늘 새로이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던 전학공이라면 새로운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찰하며 재정립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경우, 학교의 비전과 함께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의 비전을 중심으로 각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주제와 목표, 활동들을 정한다면, 학교의 비전 아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비전 설정에 대한 공동체 안의 구체적인 경험이 없으시다면 다음의 단계대로 실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1단계 마음 모으기** 구성원의 철학과 지향점, 평소에 가져왔던 공동체에 대한 원칙 등을 나누기
- 2단계 공동체 돌아보기** 우리 공동체의 현재 모습, 거하고 있는 지점 돌아보기
- 3단계 비전 세우기**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녹아있는 비전을 함께 정하기

1

1단계 '마음 모으기'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비전 설정을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 교육과정, 교사와 학생의 성장, 공동체에 대한 원칙, 우리 학교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 등을 편안하게 나누시는 단계입니다. 또한, 앞으로 함께할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나누시면 됩니다.

서로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며 생각을 모아주시면 좋습니다. 교사 동호회나 친목 모임과는 구별될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로서의 공동연구와 실천을 통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예시 질문

- 교사의 전문성이란?
-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삶의 힘은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떤 공동체, 학교,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학습이 필요인가?

2

2단계 '공동체 돌아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는 현재 어떤 모습인지, 어느 지점에 거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단계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구성원간의 관계, 공동체가 걸어오기까지 어려웠던 점, 공동체가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점 등을 진솔하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라면 각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공유해보면 좋습니다.



3

3단계 '비전 세우기' 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연구 및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향하는 비전을 함께 정하는 단계입니다. 공동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녹아있는 비전을 함께 구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비전을 단어로 적어보고, 그 단어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보며 비전을 세운다면 모두의 비전을 함께 녹여낼 수 있습니다.

- 예
- 구성원들이 제시한 키워드 → 성장, 행복, 자율성, 협력, 소통, 존중, 함께, 자발성, 실천 등
 - 함께 구상한 문장(비전) → 함께 소통하고 존중하며 자율성 기반의 실천과 협력으로 행복한 성장을 그리다

꾸준히 활동해오던 전학공으로서 비전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면, 공동체의 비전을 다시 돌아보고 그 의미를 공유하며 재정립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든 비전이 '비전 세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간에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제와 목표 정하기

“교육과정의 일치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게 작동하는 교사들 간의 비형식적인 이해와 의사소통이라는 점이다.

이런 합의와 이해가 없이는
형식적인 협의절차가 있다고 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Michael Fullan & Andy Hargreaves



비전을 정했다면 교육과정 및 수업, 학교 문화의 혁신을 위해 구성원들이 공동 연구·공동 실천을 할 수 있는 주제와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정해봅니다.

- 1단계** **생각 나누기**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는 장을 열기
- 2단계** **주제와 목표 정하기** 구체적인 주제 및 구성원 개인의 목표가 녹아있는 공동의 목표를 정하기
- 3단계** **활동 계획하기** 주제에 따른 실천 가능한 활동들을 논의하고 흐름을 연결하기

1

1단계 '생각 나누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주제와 목표는 비전을 통해 나아갈 방향과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일부 구성원의 목소리로만 공동체의 주제와 목표가 세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여, 모두의 생각들이 빠짐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연구 및 실천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나누어봅니다. '미래교육'과 같이 주제를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 '미래형 온오프라인 수업 모델 개발', '미래형 교육과정 연구', '미래형 개별 맞춤형 수업 연구' 등 구체적으로 주제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2

2단계 '주제와 목표 정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학공은 주로 학년이나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제를 포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문화가 잘 자리 잡은 학교는 학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며 학교 공동체의 성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제를 설정하고 함께 고민해가기도 합니다.

학교 간으로 이루어지는 전학공은 이미 비슷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는 것이기에 그 관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실천을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목표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을 드러내고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도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구성원의 목표가 온전히 녹아있는 공동체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제를 확정한 후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와 목표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이 동시에 오가는 가운데 그 방향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만으로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구성원 각자가 목표를 나누거나 종이에 기록하여 나열해 본 후, 그 목표들이 공통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함께 찾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목표가 실천 가능한지, 전체 구성원의 생각이 빠짐없이 반영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주제와 목표를 확정하는 시간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걸어갈 길의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구성원 각자가 어떤 역할을 공유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

3단계 '활동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비전-주제-목표 하에 어떤 연구 및 실천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해보는 단계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공동 연구-공동 실천에 필요한 학습 및 활동 등을 떠올려보고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를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활동들의 흐름을 연결하여 1년 계획을 세워봅니다.

너무 많은 활동들을 나열하기보다는 비전-목표-주제-활동이 잘 연결되어 내실 있는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내의 학년형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학습공동체라면 학년 교육과정과 공동체 활동이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계획하면 좋습니다.

공동체 구성원간의 공유와 나눔의 시간 여백도 필요합니다. 여유롭게 교육 철학과 삶을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성장이 있고,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은 월 1회로 계획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주제형이나,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경우 월 1회의 만남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 안의 학년별, 또는 교과별 전학공의 경우 일상의 수업을 나누기 위해 주 1회, 또는 격주로 모여 지속적으로 성찰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주제 선정 및 활동 계획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년, 교과, 주제 영역 단위의 자율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학교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 단위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단위, 학년 및 교과 단위 등 전학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겠지만, 주제에 따른 공동연구 및 공동실천이 아니라 주제와 관계없이 일부 활동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또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특강만을 실시하는 등 획일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주제가 단지 구성원의 취미, 동호회 활동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 뿐 아니라 학생의 행복한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고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5 주제를 정하는데 있어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제를 정하는데 있어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수업 성장,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 혁신, 평가 방법 개선 등과 관련하여 공동 연구 및 공동 실천을 할 수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학교 현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연구 과제도 좋습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내형 및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구분을 해놓았지만, 제시된 어떤 주제든 교내형 및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내형

학교문화	행복한 학교문화, 민주적 공동체, 민주적 리더십, 다모임 운영방안, 학생자치, 행정업무 경감 방안
학급운영	학급운영 A to Z,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학급긍정훈육법, 학생주도 학급활동, 토래상담, 학생상담, 학생심리, 학부모상담, 학부모와의 소통
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교육과정 설계, 통합교육과정, 이해중심교육과정, 학생중심 자율교육과정, 성취기준 개발, 학생주도교육과정, 개념기반 교육과정

수업	온라인수업 방법 연구, 수업 방법 탐구, 블렌디드 러닝, 학생성장중심수업, 백워드 설계, 맞춤형 개별화 수업, 보편적 학습설계 수업, 비주얼싱킹, 영화 활용 수업, 하브루타 수업, 수업 속 질문 연구, 토의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놀이수업, 그림책 활용 수업, 메타버스 활용 수업, 패들릿 활용 1, 2, 3
평가	수행평가 연구, 과정중심평가, 과정중심 피드백,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사고력 평가 방안, 평가 루브릭 개발, 평가문항제작, 미래형평가 연구
교직원화	교권 신장 방안, 교사 소진, 감정코칭, 교직 문화 개선
범교과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기타	독서토론, 행정업무, 연구방법론, 스몰스쿨 운영하기, 기초기본학력, 교육정책 등

 **교간형**

- | | | | |
|------------|-------------|------------|-------------|
| • 수업탐구 | • 교사교육과정 | • 교육과정 개발 | • 국가교육과정 |
| • 지역교육과정 | • IB교육과정 | • 혁신교육 | • 학교혁신 |
| • 온라인수업 | • 맞춤형 개별화교육 | • 프로젝트 수업 | • 블렌디드수업 |
| • 생활교육 | • AI교육 | • SW교육 | • 성교육 |
| • 성평등교육 | • 민주시민교육 | • 학교자치 | • 학교업무정상화 |
| • 상담 | • 교육연극 | • 방송교육 | • 예술교육 |
| • 영재교육 | • 통일교육 | • 평화교육 | • 탈북학생교육 |
| • 한글교육 | • 안전교육 | • 독서교육 | • 교육실천 내러티브 |
| • 교육자치 | • 학교자치 | • 사회참여 | • 학생자치 |
| • 학교문화 | • 퍼실리테이션 | • 학교민주주의 | • 민주적공동체 |
| • 커뮤니티매핑 | • 세계시민교육 | • 발명교육 | • (노동)인권교육 |
| • 범교과교육 | • 미디어리터러시 | • 생태환경교육 | • 진로교육 |
| • 국제교류 | • 영양식생활교육 | • 유·초연계교육 | • 지속가능발전교육 |
| • 교원의정치기본권 | • 기후위기대응교육 | • 직업교육 | • 동아시아시민교육 |
| • 교권보호 | • 기초학력 | • 미래교육 | • 창의성교육 |
| • 교육회복 | • 학교공간혁신 | • 대안교육 | • 다문화교육 |
| • 교육행정 | • 행정혁신 | • 교육재정 | • 학교회계 |
| • 사회적 경제 | • 학교협동조합 | • 대입제도 | • 보건교육 |
| • 교육복지 | • 교육정책 | • 학부모 학교참여 | • 학교급식 |
- 교과교육 - 국어교육, 수학교육, 사회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사회교육, 지리교육, 기술교육, 가정교육,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한문교육, 물리교육, 지구과학교육 등
- 특수교육 - 통합교육, 긍정적행동지원, 진로교육, 특수학급 체험활동, 장애공감문화, 특수교육상담 등
- 유아놀이연구 - 자유놀이, 놀이관찰, 놀이환경, 놀이평가, 놀이도구, 놀이공간, 생태놀이 등
- 누리과정 영역별 연구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리더십 공유하기

“한 집단의 성원이 다수의 가치를 공유하려고 하면,
모든 성원이 서로 주고받는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성원들이 아주 다양한 활동과 경험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John Dewey

1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기 위해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든지 동의할 것입니다. 전학공의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만 할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Shirley M. Hord는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들 중 리더십의 공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부여하는 의사 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Hord, 1997). 공동체의 운영은 리더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과 책임을 함께 분산하여 나눔으로써, 구성원이 함께 가꾸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

‘분산적 리더십’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요?

분산적 리더십은 단지 공동체 내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들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King, D., 2002). 또한, 공동체의 활동 내용과 운영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함으로써, 모두가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분산적 리더십은 공동체 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결정의 권한이 리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만이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또 다른 리더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

공동체의 성장 과정에 따라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학교 안의 전학공인지 아니면 학교 밖의 전학공인지의 여부에 따라 리더에게 필요한 역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지, 한참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정체기인지 정착기인지에 따라 리더의 역할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전학공이라면 모든 구성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창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한편, 정체기에 있는 전학공의 경우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며 성찰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반성적 성찰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정착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리더의 역량을 길러갈 수 있도록 공동체 내의 역할을 적절히 안배하고 뒤에서 지지해주는 리더로서의 모습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4

전학공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구성원들에게 리더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학교 안의 학년이나 교과를 중심으로 한 전학공의 경우, 공동체 활동 자체를 원하지 않는 구성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학공의 구성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학교나 학년의 특성 상 불가피하게 전학공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그러한 구성원이 ‘공동체가 함께 일구어가는 즐거움과 성취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시간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공을 들이고 헌신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리더는 다른 구성원들보다 늘 반걸음 앞서서 공동체의 지금 모습과 나아갈 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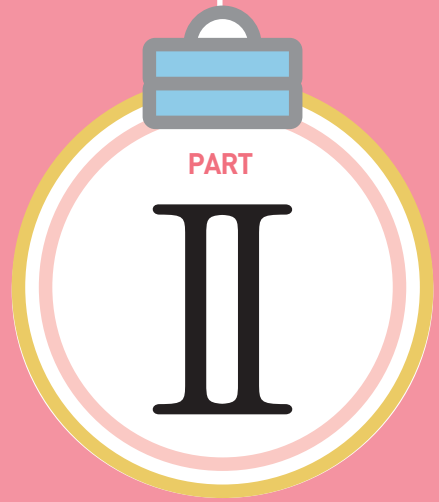
‘손잡아주는 동학년 교사’,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교사학습공동체를 촉진하는 3가지 핵심 요인입니다(윤정, 최영진, 김병찬, 2021). 마음을 열어 한 번 더 동료의 말에 귀기울여주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학생들과의 수업 속 즐거움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리더라면 소극적인 구성원들도 조금씩 전학공 활동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

리더가 꼭 한 명이어야 할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가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으며, 공동리더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분과를 정하여 연구 및 실천을 세분화하고 소주제의 리더를 세움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리더로 성장해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학공, 함께 성장하기

- 01 수업, 함께 행복하도록
- 02 우리, 더불어 성장하도록

01

수업, 함께 행복하도록



“가르침의 용기는,
마음이 수용 한도보다 더 수용하도록 요구 당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을 열어 놓는 용기이다.”

Parker J. Palmer



우리는 교사로서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한마디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는 학생,
‘아, 이런 거군요!’하고 찰나의 깨달음을 얻는 학생,
수업에 몰입하여 즐기는 학생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교사로서의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학생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가득한 수업은 교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한 수업의 길에서 함께 힘이 되어 줄 사람이
선생님의 곁에 계십니다.
바로 동료교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의 수업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나누는
공동수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움은 나뉘어 반이 되고
기쁨은 더해져 배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과 공동수업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1 공동수업, 왜 필요할까요?

공동수업은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디자인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는 자신만의 수업 세계를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에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준비와 실행의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수업을 혁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수업의 혁신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기에, 공동체가 생각과 실천을 함께 하는 공동 수업의 과정 속에서 교사는 수업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2 공동 수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 수업의 방식

공동수업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김남수, 이혁규, 2013).

- 1 하나의 지도안, 한 명의 수업교사, 한 차시의 수업
- 2 하나의 지도안, 여러 명의 수업 교사, 시차를 둔 수업
- 3 하나의 지도안, 여러 명의 수업 교사, 한 차시의 수업
- 4 여러 개의 지도안, 여러 명의 수업 교사, 여러 차시의 수업

공동 수업을 위한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은 학교 현장의 특성상 위의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이 보통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컨설팅 장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유형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의 유형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한 차시의 수업을 넘어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공동체의 집단지성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설계 및 실행의 절차

주제 선정 → 성취기준 확인 → 교육과정재구성 → 학습내용의 선정 → 평가계획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수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절대적인 순서란 없습니다.

핵심질문을 던지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점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서로의 피드백과 논의를 통해 살을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공동수업을 구상해나갈 수 있으며, 공동수업지도안도 특정한 틀이나 양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수업자는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지만, 구성원 모두가 공동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 디자인한 수업임에도 각 교실의 상황과 맥락, 수업자의 스타일, 교실 여건 등에 따라 수업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다양한 수업의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르게 발견할 수 있는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 열기

교실을 열고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구하고 고민한 수업을 실행하면서, 학생을 더 나은 배움에 다다르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수업에서의 아쉬운 점을 함께 발견하고 고민하여 더 나은 배움의 장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업을 넘어 일상의 수업을 여는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함께 나누고 성찰하는 시간은 교사의 수업근육이 더 단단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3 수업성찰협의회, 함께 해볼까요?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하는 수업성찰협의회는 수업에 관한 실제적인 토의·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어야 합니다. 함께 구상한 공동수업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때 학생에게 유의미한 배움을 주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더 연구할 부분은 무엇인지 논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 나눔 및 성찰협의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나눔 및 성찰협의회에서도 수업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나 설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 안에서의 '배움'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깊이 있는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성찰협의회 순서 예시

- 1 **수업자-의미** 수업자의 수업에 담긴 의미와 수업소감 나누기
- 2 **참여자-배움** 수업관찰 시 발견한 학생의 배움과 참여교사의 배움 나누기
- 3 **수업자-질문** 수업자의 고민, 또는 질문 던지기
- 4 **참여자-생각** 수업자의 질문에 대한 생각과 의견 나누기
- 5 **다함께-소감** 공동수업 설계과정 및 수업성찰협의회에 대한 소감으로 마무리하기

공동수업과 수업성찰협의회의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충고와 비판, 또는 칭찬 등 수업자나 동료 교사를 평가하기보다는 수업을 통해 서로가 무엇을 배웠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서경혜, 2019). 학생들의 배움과 함께 교사들의 배움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 성장하도록

교사든 아이든 어떠한 개인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곳,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고유함을 희생하지 않는 곳,
그러나 동시에 개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더 높은 가치를 꿈꾸게 하는 곳,
그곳이 공동체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진정한 힘이 들어있다.
교사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기에 위대한 존재다.
그러므로 가르침에 관한 교사의 이야기는
'평범함이라는 위대함의 역설'에 대한 기록이다.

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교직에서 얻게 되는 성공적인 경험과 만족감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에게는 분명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가르침의 현장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 또한 여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

김종훈,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이라는 책을 공동체가 함께 읽고,
책을 통해 얻은 생각과 마음들을 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기록들 중 몇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

졸업준비와 새학기 준비가 한창인 시기에 원장님께서 나에게 한 장의 공문을 주셨다. 그 공문은 바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공모사업 공문이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뭐지?', 이렇게 바쁜 시기에 굳이 지금 공모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탓에 나와 부장교사 한 명이 급히 공문을 살피어 주제를 정하고 기간 내에 공모사업 공문을 제출했다. 계획서를 작성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또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서류에 나와 있는대로만 하면 되는건지, 전문적학습공동체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있는지 무척 궁급했다.

얼마 후,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선정이 되었다. 눈앞이 깜깜했다.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가야하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까...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하나의 업무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이 가득했다. 우선 회의 시간에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방향,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선생님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나는 그 안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우리 7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 달에 한 번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일을 정하고 매 모임마다 열심히 참여했으며 그 다음 모임의 주제와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하여 진행 하였다. 선생님들은 모임일이 아니어도 스스로 서로 모여 전문적학습 공동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더 좋은 제안을 하며 조금씩 모임을 성장시켜 나갔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유치원은 규모가 크지 않아 수업 후 전체 교사들의 모임이 자유롭고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매일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 나갔다. 선배교사는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을 후배교사들과 나누고 후배교사들은 현시대의 교육 트렌드를 선배교사들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 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배 교사들은 교실에서 혼자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나는 원감이라는 위치에서 다른 후배교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유치원을 딱히 '공동체'라는 단어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적 환경, 유아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각자의 역할 속에서 생기는 업무와 가르침의 행위 속에서 이미 연결되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관계였던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교사들에게 교육적으로 자유로움을 주신 원장님과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육적 배경, 교사들의 낮은 이직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해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모임을 평가하며 1년동안 자신들이 느꼈던 것들을 나누며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준비하였다. 이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이 모임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교사, 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

OOO유치원 교사 OOO

2

우리들의 이야기, 둘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이라는 책을 읽으며 수 많은 선생님들이 공동체를 통해 거듭나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내가 밟아왔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발자국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해, 학교 업무상 공모형 공동체의 회장이 되어 이끌어 가게 되었다. 공동체의 모든 역할은 회장의 몫! 공동체 회원이 회원으로라도 있어 주는 자체가 고마울 따름이었다. 협의회 일정을 회원들에게 안내하면 ‘모여서 사진만 찍자.’, ‘30분 안에 끝내주는거지?’ 등 기운 빠지는 반응만 왔고, ‘왜 내가 회장이 되어 이 고생일까?’라는 후회와 함께 자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었다. 혼자 고민하고 연구함의 편리성, 의견 통합의 불필요성 등 부정적 감정의 합리화를 떠올리기도 했었다.

그다음 해 교내형 뿐만 아니라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까지 구성하게 되었고 더 큰 부담이 생겨났다. 그러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달리 큰 반전이 일어났다. 1학년 선생님들이라는 공통분모를 안고 시작하게 된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함께’라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공동수업을 목표로 한 공동체임에도 처음에는 1학년 담임교사로서 공통 적으로 갖게 되는 고충을 수다로 푸는 데만 한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나 보니 그 시간이야말로 교사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보듬어주어 래포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을 알았다. 공동체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실 속 삶의 이야기가 공동체 리더로서 다시 설 수 있게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책에서 소개한 ‘온전한 관계 맺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책 내용을 읽고 교수님의 연수를 접하며 그간 가져왔던 나의 공동체 생활에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 가장 크게 자리 잡는 점이 성장과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공동체 세움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마무리했다는 것과 공동체 속 이야기들을 희미해지고 있는 기억 속에만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

장기간 공동체의 고유성과 더불어 변화가는 교육의 세태를 접목하여 재구성했다면 훨씬 더 성장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소중했던 공동체 선생님들과의 오고 갔던 이야기들을 남겨 놓았다면 우리 배움의 종착지인 ‘학생’들에게 더 많이 투영되고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생긴다. 이 책을 계기로 보다 깊이 있고 넓어지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든다.

OO초등학교 교사 OOO

3) 우리들의 이야기, 셋

지난 비대면 협의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책을 주문해 의욕에 차 있었지만, 일이 많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2~3일 전부터 퇴근 후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해결하듯 읽어 나갔다. 그런데 어느덧 몰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책을 읽는 내내 나의 지난 30년 남짓 교직 생활이 오버랩되면서 동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책 속에 이야기를 쓴 선생님이 곧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여러 제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내러티브 탐구'라는 용어가 직관적으로 와 닿았다.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삶과 경험을 들여다보려 한다는 이야기 나눔.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교사라는 하나의 공통점만으로도 이렇듯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만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반갑기도 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것이 조금은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상적으로 그려지며 의욕이 생기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아이들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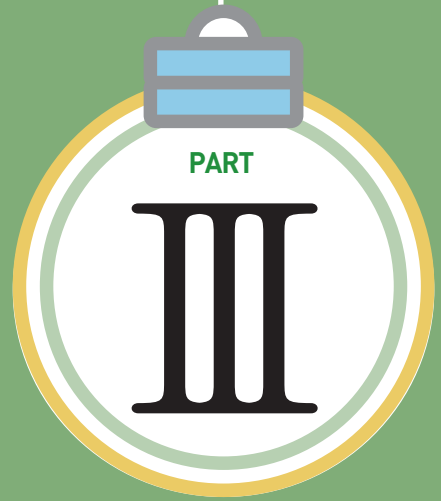
아이들을 통해 내 존재 가치와 이유를 발견할 때가 가장 뽀짝하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교사들이 모이면 결국엔 학교 이야기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보다. 그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힘을 얻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나 자신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는 조금이라도 성장해 있는 내 마음의 크기를 보게 된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할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배워나가야 한다.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확신해 본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가르침과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교사의 삶은 그래서 가치 있고 아름답다. 그 삶은 함께 할수록 빛이 난다.'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옆을 돌아보고 동료교사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지고 가자스라~”

OO고등학교 교사 000



전학공, 쉽게 운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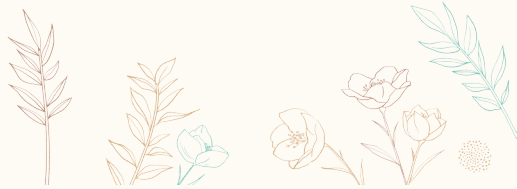
- 01 인천 전문적학습공동체, 살펴보다
- 02 인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하다

01

인천 전문적학습공동체, 살펴보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가질 때,
개인은 자신감을 얻고 학습하며 피드백을 받는다.”

Andy Hargreaves & Michael Fullan



1 인천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함께 학습하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공동 연구·실천·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내형 및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형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 안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하여, 교육과정·수업·학교 문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 실천, 공유 활동을 합니다. **학년(군)형·교과형·주제형**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동료성을 강화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교내형의 경우 동료성에 기반하여 학교 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가면서 구성원의 상호 성장과 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일상적 모임, 수업 열기, 교실 탐방, 독서 토론 등의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 밖 활동이 필요한 경우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밖 연수나 체험, 탐방활동이 가능합니다.

교간형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유·특·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급을 넘나들며 함께 참여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입니다. 10인 이상이 모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함께 연구·실천·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의 성장을 넘어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 성장을 추구합니다.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은 결국 단위 학교 안에서의 교육 활동 실천과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확대 및 내실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언제 구성하고 활동하게 되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는 공모사업혁신운영제를 통해 진행됩니다.

교내형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공모사업혁신운영제의 자율선택제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자율선택제 예산은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신청하여 학교기본운영비(통합배부사업비)로 교부되는 시스템입니다.

교내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업무 담당자는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자율02 게시판에 탑재하시면 됩니다.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팀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은 구성이 되는 날부터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간형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 간에 걸쳐 회원이 모집됩니다. 이에 구성·공모와 심사·최종명단 확정 및 예산 교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년도 12월부터 공모를 실시하고 1월 중 심사를 실시합니다. 2022학년도에는 총 294팀(유아 43팀, 특수 27팀, 초중등 224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취미활동이나 친목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기에 공동 연구 및 실천, 공유와 나눔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2022.3.1.자로 변경된 회원들의 정보를 반영하여 3월중 최종 회원명단이 확정되면 4월초 예산이 교부됩니다. 예산교부는 4월이지만, 활동은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선정되는 날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인원 구성의 제한이 있나요?



교내형

교내형은 학교구성원 3인 이상이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 인원 교과나 비담임교사, 행정직원들께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참여를 권유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운영할 때 학교 교직원의 의견이나 관심 주제 등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3~10명 내외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수업·교육과정·학교 문화·학생의 성장을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주제 선정 및 회원 구성의 과정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참여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간형

교간형은 10인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율선택제를 통한 교내형 공모가 불가하기에 교내 구성원으로만 구성하여 공모 신청할 경우, 7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기본 계획 12쪽, 31쪽 참고)

4

인천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몇 팀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교내형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에의 참여는 구성원이 시간과 열정을 내어 참여할 수만 있다면 가입할 수 있는 팀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팀수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교간형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경우 단위학교 교육활동 현장과 연계한 실질적인 운영 및 활동 내실화를 위해 1인 1팀에만 공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교간형 참여'는 교간형 학습공동체의 활동을 통한 성장이 결국은 학교 안에서의 실천과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하기에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성원들께서는 타 교간형 전학공에 자율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 모임 등의 예산 집행 시 자율회원에게도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5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원을 어떻게 모집할 수 있을까요?

여러 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경우 기존 전학공은 회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신규 전학공은 회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교육적 가치와 비전의 방향이 같은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하며,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과 새로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면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문게시판을 통해 모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연구 및 실천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 차년도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 안내 공문을 공문게시판에 탑재함으로써 회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위한 공간인 네이버 밴드의  ‘도란도란 열린 전학공’에서 직접 안내 및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2022학년도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시에는 ‘2021 도란도란 열린 전학공,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와 연계하여 <교간형 전학공과의 만남> 시간을 가지며 새로이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의 심사 영역, 기준,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영역	심사 관점	배점
비전 및 목표의 지향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비전, 철학, 목표가 공동체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향하는가?	20
연구 및 활동 계획	•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는 연구 및 활동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30
예산 집행 계획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20
공유 및 성장 과정	• 교육공동체와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성찰과 나눔, 환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20
분산적 리더십의 구현	• 분산적 리더십 구현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및 실행계획이 적절한가?	10

7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의 홍보 및 안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각 학교의 공문 접수 업무 경감을 위해 맞춤형 과제 등의 관내 홍보 및 안내 시 공문 게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동체의 행사 관련 홍보물이나 사이트 등을 인천시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위한 공간인 네이버 밴드의 '도란도란 열린 전학공'에서 직접 안내 및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8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신청 서식은 어디에 탑재되어 있을까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장학교실 - 공모사업혁신운영제 - 2022년도 - 예외19 / 자율02에 들어가시면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관련 내용 및 서식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혁신운영제로 함께 운영되기에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관련 공문이 별도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공모사업혁신운영제 관련 공문으로 안내되는 내용 및 게시판에 탑재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공모 계획에 따라 공모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인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한 안내 사이트나 자료가 있을까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특화 - 미래학교혁신과 - 학교혁신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관련한 계획서, 보고서, 활동자료집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시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밴드 '도란도란 열린 전학공'에서는 누구든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02

인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하다

“바람직한 실천을 위한 바람직한 시작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평가한다는 것은 맥락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방법과 이유까지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Paulo Freire

1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 과제는 어떻게 되나요?



교내형

맞춤형 과제 - 수업 나눔

수업 나눔에서의 수업 유형은 온·오프라인 및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하며, 학생들의 활동·참여·배움의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 수업의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나눔은 <공동수업디자인 → 수업 나눔 → 수업성찰협의회>의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연 1회 또는 구성원의 협의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일상 수업의 나눔을 지향합니다.

단, 공동체의 연구 주제 특성상 수업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학교문화, 행정혁신 등을 주제로 하는 공동체),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해당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모임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여 함께 실시하거나, 활동 내용 중 공유할만한 사례 나눔으로 수업 나눔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유과제

일상의 수업 성찰, 독서토론, 특강, 워크숍, 자료 개발, 체험 활동, 전학공 활동 나눔 등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실시합니다.



교간형

맞춤형 과제



과제 1 수업나눔 / 활동나눔

교간형 전문직학습공동체에서는 수업 나눔과 함께 활동 나눔을 맞춤형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간형 전학공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이 이루어지기에 수업 안에서의 적용을 직접 공개하기 어려운 주제(예-상담, 학교문화 등)의 경우에는 수업에 활용한 사례 중심의 전학공 활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과제 2 공개연수

강연, 워크숍, 세미나 등 각 공동체 주관의 공개 연수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공개 연수를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신청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 3 활동기록 / 자료개발

연간 활동 내용 및 결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거나, 공동 연구 및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개발합니다. 결과물은 2022.5월~2023.1.6.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부서특화-미래학교혁신과-학교지원센터-전문직학습공동체-나눔마당- 활동자료집 게시판에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자유과제

독서토론, 독서토론, 특강, 워크숍, 사회참여활동, 학습프로그램 개발, 연수 및 포럼 운영 등 수업성장과 교육 전문성 제고 활동을 자유롭게 실시합니다.

2 수업을 꼭 공개하고 나누어야 하나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 중 하나는 일상의 수업을 함께 나눔으로써 교육과정과 수업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내형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맞춤형 과제로 이루어지는 수업 나눔은 함께 연구한 내용들을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실천하고 성찰해 나가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성장을 넘어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기에 수업 장면 속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발걸음입니다.

교실과 수업을 여는 것은 결코 수업 그 자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배움을 위해 어떻게 수업을 그려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열고 나누는 일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간형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는 수업 나눔과 함께 활동 나눔을 맞춤형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간형 전학공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연구 및 실천활동이 이루어지기에 수업 안에서의 적용을 직접 공개하기 어려운 주제(예-상담, 학교문화 등)의 경우에는 수업에 활용한 사례 중심의 전학공 활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감사 초청 연수 등이 없이 구성원들의 연구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기본 계획의 정의에도 제시되었듯이 공동의 가치와 비전 아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연구, 실천 및 성찰, 공유를 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며 구성원 모두가 연구 및 실행자로 참여하여 전학공 활동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세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 및 실천활동을 하실 때, 구성원이 직접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동체나 단위 학교 내의 구성원에게는 감사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4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자율장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내의 자율장학 계획과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연계하여 협력적인 연구와 나눔을 통해 내실있는 자기장학, 동료장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학공 활동을 자율장과 연계하는 것은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교내의 장학 활동 속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동료성을 기반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성찰, 나눔과 공유의 과정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장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 과정 속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또 하나의 행정업무·형식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구성원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구성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및 수업에서의 성장을 도우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5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다른 학교와 연계하여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전학공 모임 뿐만 아니라 수업 나눔 및 연수 등도 교내 타 전학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타 학교 전학공과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수업 나눔을 여러 학교에 공개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수업 나눔을 타 학교에 공개하여 실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포탈 공문게시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탭에 공문을 게시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6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가 근무 시간 외까지 진행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인가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 시 지급합니다. 이는 실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학생교육)여야 하므로 시간외 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 공문 발송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제출사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 및 신청 현황
 ※ 2022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침 참고(공문 게시 예정)
- 2 직무연수 실시
- 3 연수 실시 결과 통보 공문 발송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제출사항: 실시 결과 통보서 및 NEIS 업로드용 이수 결과

8 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 예산 전액 집행 원칙
- 2 공동체별 활동 계획에 근거하여 예산 계획 및 집행
- 3 공동체 독서 토론용 도서와 연구 내용을 교육활동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한 재료 및 교구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를 총 50% 이내에서 구입 가능
- 4 업무추진에 필요한 협의회비(간식비, 급량비)는 30% 이내 집행 가능
- 5 운영계획에 근거한 세미나 및 워크숍, 포럼, 토론회 등 참가비 사용 가능
- 6 활동 주제에 적합한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예산 사용 변경 시 내부결재 후 집행
- 7 **집행 불가 사항**
 - 가. 공동체 회원 및 학교 구성원에게 강사비(원고료 포함) 지급 및 전체 예산 중 강사비 50% 이상 집행
 - 나. 일회성 행사(포럼, 워크숍 등)로 예산 50% 이상 집행
 - 다. 자산 취득성 예산 집행(예: 모니터, 프린터기, 악기, 드론 구입 등)
 - 라. 개인별 원격연수비 집행(학교 자율연수비에서 활용)
 - 마. 숙박비, 출장비, 차량비(주유비, 통행료 등) 집행
 ※ 단, 워크숍 공간 대여비 일부 가능
 - 바. 공동체 운영 내용과 목적에 직결되지 않는 문화 활동(영화감상, 공연 관람 등) 예산 집행

9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 활용의 예가 궁금합니다.

- 도서 구입** 독서토론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강사 초청** 전학공의 주제에 따른 연구 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숍, 포럼, 토론회 등에 함께 하시는 강사님께 감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코칭** 수업성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수업 코칭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컨설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작** 전학공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책자, 영상, 카드뉴스, 리플릿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자료제작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구입** 전학공 활동에 필요한 재료나 교구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도 가능합니다.
- 체험활동** 구성원들과 함께 전학공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 및 실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제시된 것 이외에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공동연구·실천·공유와 관계가 없는 교사 복지 및 문화 연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집행은 지양합니다. (예-공연 관람, 피복 구입비, 워킹화 구입비, 어학시험 응시료, 협회 회비 등)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지양합니다. (예-학생캠프 운영비, 학생보험료 지급 등)
-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태블릿 PC나 프린터, 외장용 하드 등 고가의 전자 기기 구매는 불가합니다.
- 원격 연수 수강은 교내 자율연수비를 활용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1

전문적학습공동체 결과 보고 및 정산을 위한 서식이 있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특화 - 미래학교혁신과 - 학교혁신지원센터 -  학교혁신자료실에 들어가시면 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기본 계획이 탑재되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혁신과-2299(2022.2.24.)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교내형 및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특화 - 미래학교혁신과 - 학교혁신지원센터 - 컨설팅 -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컨설팅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컨설팅 실시 후 사후 성찰까지 지원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교내형

공동체 비전세우기, 운영 방법, 수업 나눔 절차, 운영 프로토콜, 민주적 학습공동체 문화, 예산 집행 방법 등

교간형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비전 및 목표 세우기, 맞춤형 과제 운영 방법, 예산 집행 절차, 타 공동체와의 상호 연계 활동, 전문가 인력풀 구축, 자료 개발 및 활동 기록 방식 등

13 우리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원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와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찰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구성원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학교

구분	성찰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지원	• 공동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가?					
	• 교사들이 자율성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가?					
	•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운영 계획의 탄력적 변경을 지원하는가?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시간을 보장하는가?					
	• 공동체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는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분	성찰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구성	•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운영하는가?					
	•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향하고 있는가?					
	•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활동의 주제와 목표를 선정하는가?					
	• 공동체의 활동 주제가 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상황과 연결이 되는가?					
참여와 소통	• 정기적인 모임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가?					
	• 전학공 활동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가?					
	•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가?					
	• 서로 존중하며 민주적 문화 기반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연구와 실천	•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는가?					
	• 협력적인 연구 및 지속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가?					
	• 공동의 연구가 반영된 수업(활동) 나눔이 이루어지는가?					
	• 학생과 교사의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협의회가 이루어지는가?					
성찰과 공유	• 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 다른 학습공동체와 개방적, 협력적으로 교류하고 있는가?					
	• 집단지성을 통해 (학교)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하는가?					
	•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이 학교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 위의 질문들은 김하정(2021)의 교사학습공동체 평가준거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현황에 적합하게 구성원이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66

당신은 모든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가슴속에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지극히 낯선 말로 적힌 책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해답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9

Rainer Maria Rilke



참고문헌

- 곽영순, 김종윤(2016). 한국형 교사 학습공동체의 특성과 과제. **교육과정평가연구**, 19(1), 179-198
- 김남수, 이혁규(2013).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 수업 설계와 실행 사례 분석. **교육문화연구**, 19(1), 29-56.
- 김종훈(2018). 교사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의미: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연계와 협력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6(3), 29-47.
- 김종훈(2020). **교사, 함께 할수록 빛나는**. 인천: 템북.
- 김하정(2021). 교사학습공동체를 위한 발달지향적 평가준거체제 개발.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태주(2015).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대전: 지혜.
- 서경혜(2019). 학교단위 교사학습공동체 운동의 의의와 과제. **교육과학연구**, 50(2), 1-28.
- 오윤주 외(2021). **학교의 미래,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열다**. 서울: 살림터.
- 윤정, 최영진, 김병찬(2021). 무엇이 교사를 달리게 하는가?: 교사 학습공동체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발견. **한국교원교육연구**, 38(4), 199-228.
- 인천광역시교육청(2022). **2022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기본 계획**.
- Andy Hargreaves, Michael Fullan(2012). *PROFESSIONAL CAPITAL*; 진동섭 옮김(2014). **교직과 교사의 전문적 자본 - 학교를 바꾸는 힘**. 파주: 교육과학사.
- Cecile Andrews(2013). *Living Room Revolution: A Handbook for Conversation, Community and the Common Good*; 강정임 옮김(2013). **유쾌한 혁명을 직담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서울: 한빛비즈.
- Gerald Huithier(2018). *Wurde: Was uns stark macht - als Einzelne und als Gesellschaft*; 박여명 옮김(2019). **존엄하게 산다는 것**. 서울: 인플루엔셜.
- John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옮김(2007). **민주주의와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King, D.(2002). The changing shape of leadership. *Educational leadership*, 59(8), 61-63
- Michael Fullan, Andy Hargreaves(1996). *What's Worth Fighting for in Your School?*; 최의창 옮김(2006). **학교를 개선하는 교사**. 서울: 레인보우북스.
- Parker J. Palmer(1998). *The Courage to Teach*; 이종인, 이은정 옮김(2005).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서울: 한문화멀티미디어.
- Paulo Freire(1998). *Teachers as cultural workers-Letters to those who dare teach-*; 교육문화연구회 옮김(2000). **기꺼이 가르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프레이리의 교사론**. 서울: 아침이슬.
- Rainer Maria Rilke(1929). *Briefe an einen jungen Dichter*; 김재혁 옮김(2006).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총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 과 장 신경순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 장학관 이진배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 장학사 정옥희

개발 및 집필

참조은유치원 교사 김다영

프렌즈유치원 원감 김인경

인천예림학교 교사 윤두수

인천은송초등학교 교사 김주희

인천남촌초등학교 교사 채순자

인천축현초등학교 교사 이신원

인천병방초등학교 교사 김정선

인천새말초등학교 교사 조희련

구산중학교 교사 김정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 최정심

부광여자고등학교 교사 윤영희



발행일 2022. 3.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혁신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출판사 · 발행사 (주)글소리

주 소 인천 동구 셋골로 230-1 글소리빌딩

전 화 032-873-2626

팩 스 032-724-2289

※ 교육용 교재 활용 이외에 무단복제 및 콘텐츠 배포 및 사용을 금합니다.

※ 문의사항은 출판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